

부문별 주요 기사

10월 11일~11월 10일

대내경제
농업 및 식량
대외경제
남북경협

부문별 주요 기사

10월 11일~11월 10일

대내경제 119

- WHO, 북한에 원격 화상진료 확대 | 119
 - 북, 유원지 건설붐 선전 | 119
 - WHO, 지난해 북한 결핵 사망률 감소 | 119
 - 북, 대학생 건설 동원 급감 | 120
 - WHO, 북 보건성에 의약품 기증 | 120
 - 북 태블릿PC, 중국 제품과 매우 흡사 | 120
 - 북, 외국 기업에 정보통신서비스 홍보 | 121
 - 북, 내각인사 노동당 소속 진입 | 121
 - 북·중, 나선타구 개발 진척 | 122
-

농업 및 식량 123

- 중, 북한 식량지원에 1백만달러 기부 | 123
- 스웨덴, 올해 6백20만달러 대북 지원 | 123
- 북 수확량 '3할' 농민에 이행 안돼 | 124
- 북, 자연재해로 올해 농업에 적잖은 지장 | 124
- 북, 곡물생산량 1970년대 수준 | 124

대외경제 126

- 북·중 경제무역문화관광 박람회 개막 | 126
- 1~8월 북·미 교역액 1천1백80만달러 | 126
- 북, 해외 관광객 유치 노력 | 127
- 중국 훈춘 통한 북·중 교류 증가 | 127
- 1~9월 북 주민 방중 13만 3천명 | 127
- OECD, 최고 수준의 대북 금융제재 유지 | 128
- 북·중 교역 증가세 둔화 | 128
- 북·시리아 경제특구 '협조 양해문' 체결 | 129

남북경협 130

- 금강산관광 중단 피해, 4년간 2조원 넘어 | 130
- '남북합영기업 1호' 평양대마방직, 북·중 박람회 참가 | 130
- 북,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세금폭탄' | 131
- 개성공단 입주기업, 작년 영업익 흑자전환 | 131
- 1~9월 남북교역, 지난해 대비 15% 증가 | 132
- 개성공단 과세 논란 지속 | 132

대내경제

WHO, 북한에 원격 화상진료 확대

세계보건기구(WHO) 평양사무소에 따르면 북한 내 원격 화상진료 서비스가 203개 군지역으로 확대됨. WHO는 북한 보건성과 협력하여 평양산원, 김만유병원을 중심으로 9개 도인민병원, 203개 군단위 병원에 대한 원격 화상진료체계를 구축함. 북한의 중앙 의료전문가들은 원격 체계를 이용, 치료하기 어려운 증세를 진단하고 치료 조언 및 최신 의료기술과 연구성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 4월 아시아 지역의 화상진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평양에서 기술회의를 열 계획임. WHO는 그동안 컴퓨터, 카메라 등을 포함한 관련 기술을 지원하고 전문가 파견을 통해 화상진료 운영방법 등을 교육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계획임.

Voice of America, 연합뉴스, 중앙일보, 10.11

북, 유원지 건설붐 선전

평양을 비롯한 북한 전역에서 공원과 유원지를 건설하거나 개·보수하는 붐이 일고 있다고 「조선 중앙통신」이 보도함. 통신은 “전국 각지에서 문화휴식터를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이고 있다” 며 건설붐이 인민의 행복을 위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조치라고 선전함. 평양시 만경대 구역에는 수천㎡ 면적의 팔골공원이 새로 건설됐으며 개성시 및 강원도 원산, 자강도 강계, 만포, 희천 등지에도 새로운 유원지가 건설되거나 기존의 시설이 개·보수된 것으로 알려짐. 또한 해산 청년광산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공장에도 수영장, 물놀이장, 탁구장 등의 휴식공간이 잘 꾸려졌다고 선전함. 매일경제, 연합뉴스, 조선일보, 중앙일보, 10.17

WHO, 지난해 북한 결핵 사망률 감소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2012 세계 결핵통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북한에서의 결핵 사망자 수는 10만명당 6.4명으로 2010년보다 7.7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한편, 북한의

2011년 결핵 발병자는 인구 10만명당 345명으로 전년도와 동일했으며 전체 결핵환자 9만 1천 433명 중 전염성 결핵환자는 3만 1천279명으로 집계됨. 또한 치료가 어렵고 비싼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경우 북한에서는 37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전체 규모는 3천5백명으로 추산됨. **Voice of America, 매일경제, 연합뉴스, 중앙일보**, 10.18

북, 대학생 건설 동원 급감

북한에서 대학생들을 건설현장에 동원하던 모습이 사라짐. 최근 북한 매체가 전하는 공사장 관련 보도에서 학생들을 찾아보기는 어려운 반면 군인들은 지속적으로 공원 리모델링, 준설 작업, 호안공사 등에 투입되고 있음.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의 12기 6차 회의에서 “각급 인민보안, 검찰기관들은 교원·학생을 과정안(교과 과정)에 반영된 국가적 동원 외의 다른 일에 무질서하게 동원시키는 현상을 없애기 위한 법적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12년제 의무교육제도를 발표한 이후 평양지역 대학생들의 건설 동원이 줄어든 대신 군인들의 공사 투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매일경제, 연합뉴스, 조선일보**, 10.21

WHO, 북 보건성에 의약품 기증

세계보건기구(WHO)가 북한 보건성에 의약품을 기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보도에 따르면 평양에서 열린 의약품 기증식에 보건성 부상 및 북한주재 WHO대표,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아동기금(UNICEF) 평양 대표부 관계자 등이 참석함. WHO는 올 여름 북한 수해복구 사업에 31만달러 규모의 지원사업을 벌여 황해도에 ‘전염병 센터’를 설치하는 등 그동안 결핵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과 어린이 영양제 등을 북한에 지원해 왔으며 정부도 대북 의약품 지원사업에 자금을 보탬. **연합뉴스, 중앙일보, 한국일보**, 10.23

북 태블릿PC, 중국 제품과 매우 흡사

북한에서 개발한 태블릿PC가 중국산 저가 제품과 외형이나 기능 면에서 매우 흡사한 것으로

나타남. 북한전문 웹사이트 'NKNews' 는 「조선중앙TV」가 최근 평양정보기술국에서 개발한 '핀형컴퓨터-아리랑' 을 보도한 화면에 나타난 기기가 중국 선전지역 공장에서 생산되는 40~1백20달러 상당의 저가 태플릿PC와 너무나 흡사하다며 제품의 형태, 터치패드 구성, 핵심 소프트웨어 등의 유사점을 지적함. 「조선중앙TV」는 북한 당국이 최근 11년제 학제를 12년제로 개편한 것을 거론하며 이와 더불어 태블릿PC를 통해 “국가의 과학기술 보급, 문화·교육 프로젝트 발전에 기여할 것” 이라고 소개한 바 있음. **NKNews, 연합뉴스, 한국일보**, 10.26

북, 외국 기업에 정보통신서비스 홍보

북한이 평양과 나선지방에 국제전화와 인터넷을 개방하는 등 정보통신서비스를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조선합영투자위원회는 베이징에서 열린 투자설명회에서 나선과 평양에 국제통신센터를 세우고 외국 기업들에 한해 국제전화와 전자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혀 특구 등과 같은 특수지역에서 제한적인 전자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북한은 단둥 으로부터 중국 정보통신회사인 '중국 전신' 이 제공하는 광섬유 통신선을 연결해 기업용으로 사용 가능한 100Mbps급의 인터넷 서비스를 나선과 평양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힘. 「조선신보」에 따르면 인터넷 등록비는 3백유로, 한 달 사용료는 3백90유로이며 8월 현재 나선지구 인터넷 가입 기업은 40여 개인 것으로 알려짐. **Radio Free Asia**, 10.26

북, 내각인사 노동당 속속 진입

북한 내각에서 경제분야를 담당했던 고위 간부들이 잇따라 노동당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보도에 따르면 최근 한광복 전 내각 부총리는 당 중앙위 과학교육부장에 임명, 박봉주 전 총리는 당 경공업부 제1부부장 발령에 이어 경공업부장에 임명, 광범기 전 부총리는 당비서 겸 부장에 임명되는 등 실물경제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당 산하 전문 부서에 내각 출신 인사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북한의 전 스위스 주재 대사였던 리수영의 경우 내각 합영투자위원장을 맡은 이후 현재 당 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내각 인사들의 북한 경제부문에 대한 영향력 확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됨. **Radio Free Asia**, 10.26

북·중, 나선특구 개발 진척

북한과 중국이 나선특구 개발에 진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의 조정호 나선시 인민위원장, 중국 장안순 지린성 옌변주 당서기, 전보진 청진주재 중국총영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나선특구 관리위원회 청사 착공식을 열고 표식비 건립, 관리위 현판제막식 등의 행사를 진행함. 또한 나선에서 중국 훈춘과 마주하고 있는 북한 원정리까지의 도로 보수가 끝남에 따라 같은 날 도로 개통식도 개최됨. 나진~원정 간 도로는 연장된 도로 길이가 약 50km, 너비 평균이 9m, 최고 16m에 이르며, 착공 1년 4개월 만에 기존의 비포장도로를 넓혀 포장하고 교량을 놓는 공사를 거쳐 개통됨. 한편, 나선특구에 중국 측 전력을 공급하는 송전사업에 대한 타당성연구 보고서가 중국국가전력망공사(SGCC)의 기초 심사를 통과함으로써 지역 내 전력 공급도 가시화됨. SGCC가 중국 지린성 훈춘에서 나선특구까지 66kV의 송전선로 97.8km를 설치하고 나선시에 변전소를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송전사업은 향후 기술적 측면에 대한 보완·개선 작업을 거쳐 사업계획이 완성될 예정임. **Voice of America, 연합뉴스**

10.26, 10.27

농업 및 식량

중, 북한 식량지원에 1백만달러 기부

중국이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대북 식량지원사업에 1백만달러를 기부함. WFP는 중국이 기부한 자금으로 1천5백50톤의 옥수수를 사들여 영양강화 식품으로 가공한 뒤 40만명의 북한 여성과 어린이에게 한 달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힘. WFP는 이미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영양지원사업’ 을 통해 지난 7월부터 북한 83개 군에서 239만명을 지원했으며 내년 6월까지 총 12만 3천톤의 식량을 지원할 계획임. 그동안 WFP는 러시아, 스위스, 브라질, 캐나다 등의 참여를 통해 약 5천8백만달러를 모금했으며, 이는 사업 종료시기까지의 예상 소요 자금 1억 5천만달러의 38.7% 수준임. WFP는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 절실하다며 앞으로 겨울 동안 여성과 어린이에게 영양지원을 하려면 3만톤의 옥수수와 4천톤의 식용유를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고 밝힘. **DailyNK, Radio Free Asia, Voice of America, 연합뉴스**, 10.16

스웨덴, 올해 6백20만달러 대북 지원

스웨덴 정부가 올해 개별 국가로는 최대 규모인 6백27만달러 상당의 대북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Radio Free Asia」가 보도함.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SIDA)이 “2000년대 후반까지 대북 식량지원에 주력하다 최근에는 보건·의료 부문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고 밝혔으며, 이는 규모 면에서 유엔과 유럽연합 다음으로 가장 많고 개별 국가로는 최대 규모임. 지원자금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아동기금(UNICEF) 등 국제기구와 스웨덴 적십자사, 아일랜드 비정부기구 ‘컨선 월드와이드’, 영국 ‘세이브 더 칠드런’ 등 유럽 비정부기구들에 기부되며 이를 통해 각 단체는 북한의 수해 복구, 식수 및 위생사업, 기초의약품 제공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임. **Radio Free Asia, 연합뉴스**, 10.19

북 수확량 '3할' 농민에 이행 안 돼

북한 당국이 일부 지역에 '새경제관리체계'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올 가을 협동농장들에서 예전과 같이 배급과 균량미를 거두어 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은 양강도 대흥단군과 백암군 감자농장, 포태종합농장과 같은 국영농장들과 김정숙군 협동농장을 시범 단위로 지정하여 농업생산을 독려하고 몇몇 시범작업반 농장원들에게는 땅을 떼어 주는 파격적인 조치도 취해 봤지만 비료문제 및 날씨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국가계획에 못 미쳤다고 전함. 낮은 생산량으로 인해 시범 단위들에서도 예년과 같이 생산된 작물 대부분을 거둬들여 식량 부족을 겪을 것으로 예상. **Radio Free Asia**, 10.23

북, 자연재해로 올해 농업에 적잖은 지장

북한이 올해 가뭄과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농업생산에 상당한 피해를 봤다고 「로동신문」이 보도함. '한 해 농사의 결실과 과학기술적 총화'라는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북한은 "혹심한 가뭄(가뭄)과 큰물(홍수), 태풍 피해로 농업생산에서 적지 않은 지장을 받았다"고 전함. 또한 "기상조건과 종자, 지력, 기계수단, 영농물자 보장 등에 대한 정확한 타산(계산)과 노력조직, 회계업무를 비롯한 경영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해야 농업생산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강조함. 통일부는 북한이 극심한 봄 가뭄으로 감자, 밀 등 이모작 작물 생산에 타격을 받았으며 여름 집중호우 및 태풍 '볼라벤' 등의 영향으로 12만 정보 이상의 농경지가 침수되어 추곡 생산량이 예년보다 60만톤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함. **동아일보, 연합뉴스, 한국경제**, 10.24

북, 곡물생산량 1970년대 수준

북한의 한 해 곡물생산량이 1970년대 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남. 통계청이

공개한 식량농업기구(FAO)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쌀, 밀, 보리, 옥수수 등 곡물생산량은 2010년 4백52만톤으로 1970년대 초반 생산량 수준임. 북한의 곡물생산량은 1961년 3백 58만톤을 기록한 이래 1971년 4백49만톤, 1981년 6백25만톤 등으로 증가하여 1993년 9백 13만톤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뒤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을 전후로 급감하였음. 2002년 4백21만톤, 2010년 4백54만톤 등 2000년대 들어 북한의 곡물생산량은 다시 4백만톤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나 과거와 같은 뚜렷한 증가세는 보이지 않고 있음. **동아일보, 연합뉴스**, 11.4

대외경제

북·중 경제무역문화관광 박람회 개막

북한과 중국은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서 ‘2012 중·조(북한) 경제무역문화관광 박람회’를 개최함. 이번 박람회에는 무역성과 국가전람사를 주축으로 북한의 식료품, 의류, 전자제품, 약기, 화장품 등을 생산하는 북한 기업들과 광물자원, 기계류, 생수 등의 교역을 담당하는 북한 무역회사 등 100개 기업, 300명 규모의 경제무역단과 100여 명의 문화예술단 등 총 4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이와 별도로 중국을 포함한 말레이시아, 프랑스, 러시아, 대만 등지로부터 400여 개 기업이 참가해 상품 전시와 투자구매 상담을 진행. 일부 관람객들은 상품전시관에 나온 북한제 인삼가공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 공예품 등을 현장에서 대량으로 구매하기도 했으며 북한 홍보 부스에는 중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통역원이 배치되는 등 중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 활동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 **DailyNK**, 10.11, **동아일보**, **연합뉴스**, 10.13

1~8월 북·미 교역액 1천1백80만달러

미국 상무부 무역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미국과 북한 간 교역액이 1천1백8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고 「Voice of America」가 보도함.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교역액인 2백만 달러의 약 6배에 이르는 규모로 미국이 북한에 수출한 품목 중 ‘민간기구가 구호 또는 자선으로 제공한 지원품목’이 1천1백40만달러로 전체의 96% 이상을 차지했으며 북한으로부터의 수입 실적은 없었음. 보도에 따르면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대북제재 행정명령에서 북한의 상품, 서비스, 기술 등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며 “다만, 인도적 물품이나 유엔의 인도적 노력을 지원하는 물품,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승인한 농산품과 의료장비 등은 수출 또는 재수출을 승인하고 있다”고 알려짐. **Voice of America**, **연합뉴스**, 10.14

북, 해외 관광객 유치 노력

북한이 중국인 관광객 유치뿐만 아니라 필리핀, 대만 등지로부터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전해짐. 관광·여행 전문지 「TTG아시아」에 따르면 필리핀 호화관광 전문여행사 ‘셀리브레이트 라이프’가 내년 2~3월부터 필리핀인의 북한 관광을 성사시키기 위해 북한 당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북한 조선국제여행사 사장이 대만을 방문해 주요 여행사 관계자들과 대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임. 북한은 외국 부유층을 겨냥한 맞춤형 고급 관광과 골프 등 특화된 관광상품을 선보이고 있음. **Radio Free Asia, 연합뉴스**, 10.19

중국 훈춘 통한 북·중 교류 증가

북한, 러시아와 접경한 중국 훈춘을 통한 북·중 교류가 늘어나고 있다고 「연변일보」가 보도함. 보도에 따르면 올해 1~9월 훈춘에 위치한 각 통상구의 출·입경 인원과 차량은 50만명, 8만 6천대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1.6%, 20%씩 증가했으며 그중 북한 나선특구, 나진항으로의 왕래 여객과 수출입 화물은 각각 25만명, 14만톤으로 기록됨. 훈춘은 국가급 경제특구인 ‘훈춘국제 합작시범구’로 지정되는 등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두만강 유역 경제벨트인 ‘창지투 개방 선도구’를 건설하고 훈춘-나선을 연결고리로 삼아 국제적인 물류거점으로 조성될 계획. **Radio Free Asia, 매일경제, 연합뉴스**, 10.22

1~9월 북 주민 방중 13만 3천명

중국 국가여유국이 발표한 ‘2012년 1~9월 외국인 입국 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중국을 공식 방문한 북한 주민은 13만 3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9%가 증가함. 방문 목적별로는 취업 6만 1천1백명, 회의 및 사업 3만 8천4백명, 관광·레저 3천4백명, 친지 방문 1백명 등의 순이었고 연령대별로는 45~64세 6만 8백명, 25~44세 5만 6천3백명 등의 순으로 많았음. 성별로는 남자 10만 5천9백명, 여자 2만 7천1백명으로 남자가 많았음. 입국 교통수단으로는

선박 5만 2천1백명, 자동차 3만 4천7백명, 항공편 2만 9천1백명, 기차 1만 2천9백명 등의 순이었으며 입국한 북한 주민들은 주로 단둥, 훈춘, 투먼, 창춘 등 중국 동북지역 도시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됨. 조사 대상에는 정식 절차를 밟아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들만 포함되고 비공식 경로를 통해 입국한 주민들은 포함되지 않았음. **Radio Free Asia**, 10.22, **Voice of America**, **중앙일보**, 10.23

OECD, 최고 수준의 대북 금융제재 유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 금융조치국(FATF)이 북한에 대한 최고 수준의 금융 제재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함. FATF는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척결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북한이 그 같은 문제에 대처하지 않고 있음에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하고 회원국들에게 발령한 대북 경고 내용을 재확인함. FATF는 지난 2월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방지 비협조 국가로 분류된 북한에 대한 제재수위를 '주의 조치' 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 로 상향 조정할 바 있음. **Voice of America**, **중앙일보**, 10.23

북·중 교역 증가세 둔화

북한과 중국의 교역액 급증세가 최근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북한의 대중국 수입액은 26억달러, 수출액은 19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 5% 늘어났으며 총 교역 규모는 45억달러로 7% 증가함. 그러나 북·중 교역액은 2010년에 34억 7천만달러, 2011년에 56억 3천만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32%, 62% 늘어난 것에 비해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된 것임. 교역액은 올해 1~2분기까지만 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3분기 들어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북한의 올해 대중국 수출품은 석탄이 전체 수출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9억 8천만달러를 기록했으며 철광석과 비합금선철 등 광물자원이 뒤를 이음. 수입품으로는 원유와 20톤 이상 화물차, 석유, 역청류 제품, 직물류 등의 순으로 나타남. **Voice of America**, 11.1

북·시리아 경제특구 ‘협조 양해문’ 체결

북한과 시리아가 평양에서 경제공동위원회 제8차 회의를 열고 경제무역 및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보도에 따르면 양국은 ‘특수경제지대와 자유지대에서의 호상협조(상호협조)에 관한 양해문’ 을 포함하여 환경보호에 관한 협조 양해문, 농업과학연구의 협조·교류 합의서, 2012~15년 정보봉사(서비스) 집행계획서, 관광협조 이행을 위한 집행계획서 등에도 서명함. 조인식에는 북한 측 리용남 무역상, 리광근 합영투자 위원장, 김창룡 국토환경보호상, 김형준 외무성 부상, 계영삼 농업과학원장 등이 참석했다고 통신은 전함. **매일경제, 연합뉴스**, 11.5

남북경협

금강산관광 중단 피해, 4년간 2조원 넘어

한국관광공사, 현대아산, 강원도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8년 7월 고 박왕자씨 피살 사건 이후 금강산·개성 관광 중단과 북한의 자산동결 조치로 인한 피해규모가 2조 284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됨. 현대아산이 시설투자 7천690억원, 매출 6천297억원으로 총 1조 3천988억원의 피해를 보았고 민간협력업체가 3천318억원, 강원 고성군이 1천421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남. 고성군의 경우 금강산 육로관광 중단으로 관내 관광객이 2007년 621만명에서 2011년 483만명으로 급감했고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실직자들의 전출로 인해 인구가 10년 만에 8.1% 감소함. 한국관광공사는 자산동결 900억원, 매출손실 106억원 및 금강산 개발과정에서 차입한 남북협력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 유예금 224억원 등으로 인해 재정부담이 증가함. **연합뉴스, 중앙일보, 10,11**

‘남북합영기업 1호’ 평양대마방직, 북·중 박람회 참가

남북한 최초의 합영기업인 평양대마방직이 단둥에서 개최된 ‘2012 중·조(북한) 경제무역 문화관광 박람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됨. 평양대마방직은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의 새별총 회사와 남한의 안동대마방직이 공동으로 평양 선교구역에서 운영해 오던 ‘남북합영기업 1호’로써 2010년 5·24조치 이후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박람회에 참석한 것으로 보아 북측이 남측의 투자설비로 공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한편, 안동 대마방직 측은 “북측과 박람회 참가를 협의한 적 없다”며 “을 들어 북측과 연락이 끊긴 상황”이라고 밝힘. 민경련은 2011년 10월 안동대마방직에 공장이 오랫동안 가동되지 못한 책임이 남측에 있다며 ‘계약 파기’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으나 정식으로 합의한 적은 없음.

매일경제, 연합뉴스, 중앙일보, 10,16

북,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세금폭탄’

북한이 최근 마련한 ‘세금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일방적인 세금을 부과하고 퇴직금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됨. 정부 당국자는 북측이 “개성공단 입주기업 가운데 일부에 실제 기업 소득세, 영입세 등의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했다”고 밝힘. 세금이 부과된 업체는 전체 124개 입주기업 가운데 10~20여 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북측의 세금 부과는 입주기업의 자진 신고가 아닌 북측의 자체 추산으로 일방적으로 부과됐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음. 어느 한 의류생산업체는 북측으로부터 10만달러의 ‘세금폭탄’을 맞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입주기업들이 원부자재 구매 증빙 서류, 원가분석 자료 등도 요구당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물품의 반·출입이나 공단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압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퇴직금 요구와 관련하여 정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이 자신들을 대변하는 직장장을 통해 입주기업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힘. 반면,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 의하면 북측 근로자들이 스스로 그만둘 경우 남측 기업들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 그동안 자진해서 그만두는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음. 개성공단에는 8월 말 기준 5만 2천8백81명의 북측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매년 5백~1천명이 건강이나 결혼 등의 이유로 퇴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동아일보,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국일보,**

10.18

개성공단 입주기업, 작년 영업익 흑자전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경영 상태가 점차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통일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 119개사의 경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지법인의 평균 영업이익이 지난해 처음으로 5천6백만원 흑자로 전환된 것으로 집계됨. 평균 매출액은 2009년 9억원, 2010년 11억 3천2백만원, 2011년 14억 7천6백만원으로 성장했으며 당기순익은 2009년 2억 7천2백만원, 2010년 1억 3천4백만원, 2011년 1천4백만원을 기록하여 손실 규모가 줄어들었음. 또한 개성공단 업체들의 지난해 매출증가율, 영업이익률, 부채비율은 각각 30.0%, 3.8%, 346.7%를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국내 중소기업의 매출증가율, 영업이익률, 부채비율은 각각 11.7%, 4.2%, 171.0%로 나타남. 현재 개성공단의 북측 근로자 규모는 5만 2천명을

넘어섰으며, 입주 기업들은 추가로 1만 8천명 정도의 인력을 더 필요로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힘. **서울신문, 연합뉴스**, 10.18

1~9월 남북교역, 지난해 대비 15% 증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남북교역액이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해당 기간 내 북한으로의 반출액은 6억 6천만달러, 반입액은 7억 9천만달러로 총 14억 5천만달러의 교역이 이루어졌으며 각각 13%, 18% 증가함. 품목별로는 의류 생산용 원부자재와 생산설비가 주요 반출 품목으로, 여성의류 등 가공 생산된 완제품이 주요 반입 품목으로 나타남. 5·24조치 제재대상에 속한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은 사실상 중단된 반면 제재대상에서 제외된 개성공단을 통한 교역이 그만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통일부는 제재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대북업체들에게는 대출금 상환 연장 및 무상 자금지원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Voice of America**, 10.17

개성공단 과세 논란 지속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과세방침을 개정된 북한의 '세금규정 시행세칙'에 대한 논란이 남북한 당국과 입주기업들 사이에서 해결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벌어짐. 개성공단기업협회가 통일부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세금규정 시행세칙을 정부가 나서서 철회해 달라며 건의문을 제출한 가운데, 북한 측 중앙특구개발 지도총국은 남측의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에 "기업들에 설명을 잘 해라. 이해를 잘 시켜라"고 요구함. 통일부는 개성공단관리 위원회를 통해 중앙특구개발 지도총국과 협의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고의 누락한 세금에 대해 3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한 상위법까지 무시한 새 시행세칙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북측은 아직까지 주권 행위라는 답변만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Voice of America, 10.29. **동아일보, 연합뉴스**, 10.30

본지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본지에 실린 모든 내용은
발행인의 사전허가 없는 무단전재와 역재를 금합니다.